

원내대표 선거...국힘 '친윤' 2파전·민주 '친명-비명' 대결

여야 총선 1년 앞두고 원내대표 선출

7일 선거 국힘 김학용·윤재욱 대결

민주 내주 선관위 꾸려 경선 레이스

이원욱·김두관·안규백·홍익표 거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까지 원내 사령탑을 맡을 원내대표 선출에 나설 예정이어서 경쟁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양당의 공천 지형은 물론 전체적인 총선 판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현재까지는 김학용(4선·경기 안성) 윤재욱(3선·대구 달서) 의원 간 양자구도다. 두 명 모두 '친윤(친윤석열) 후보'인 만큼 계파 대결 양상은 없는 분위기다. 대신 소속 의원들은 총선 승리 유불리와 대야 협상 경험 등을 기준으로 누가 적합한지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후보 등록을 받은 뒤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김 의원과 윤 의원은 4~5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1961년생 통감대기인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정부 성공과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출신 원내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지역구가 모두 영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도부의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놓고 있다.

반면, 윤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2017년 자유한국당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대야 협상 경험을 높이 평가한다. 거대 야당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발휘해 윤석열 정부 개혁 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국정 지지도를 견인하고 총선 승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 원내대표는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쟁점이 산적한 4월 임시국회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양극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한일정상회담 결과 및 대통령실 외교 참모진 교체 관련 논란 등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현안이 유독 많다. 아울러 주 69시간 근로제,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할 정책 이슈도 당이 주도해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치력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단행한 당직 개편 이후 계파 갈등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시선은 이제 차기 원내대표 선거전으로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진영의 세력 대결 양상이 펼쳐질 경우, 원내대표 선거가 다 시금 당내 파열음을 자극하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당이 대선 패배 이후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놓고 줄곧 내홍에 시달렸던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부 화합'에 선거전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원내대표 선거는 이르면 이달 말, 조금 늦어지면 다음달 초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당 최고위원회가 늦어도 다음 주 선거일을 확정하고,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경선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달 27일 예정된 만큼 선거일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비명계인 3선 이원욱 의원과 친명계로 분류되는 재선의 김두관 의원이 지난 달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안규백(4선)·박광온·윤관석·홍익표(이상 3선)의원 등도 출마를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선 검찰발 악재로 인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명 진영이 세력집에 나설 경우,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계파를 떠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전체 판세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선 그래도 친명과 비명 진영의 보이지 않는 세 대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컷-오프 과정에서의 연대 및 공조를 통해 친명과 비명 주자의 최종 결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입장하는 윤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31일 오후 순천시 순천만국제정원원에서 열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출범 한달도 안된 국힘 김기현호 지지율 하락 늪 빠져

6%P 빠져...대통령과 동반하락

수도권 심각...총선 참패 위기감

국민의힘 김기현호(號)가 출범 한 달도 안 돼 지지율 하락 늪에 빠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일정상회담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주 69시간 근로제' 논란에서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고, 친윤(친윤석열) 일색으로 지도부를 꾸린 와중에 김재원 최고위원 실언까지 이어지는 등 '악재'가 겹친 탓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승리의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는 지상 과제 앞에 신임 지도부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동반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를 보면 3·8 전 당대회 일주일 전인 3월 1주차(2월 28일~3월 2

일)에 39%를 찍었던 당 지지율은 5주 차인 이번 33%로 6%포인트(p)나 급락했다.

같은 기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36%에서 30%로 떨어졌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1주차 29%에서 5주차 33%로 4%p 올라 국민의힘과 같아졌다.

지역별·연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총선 승리 바로미터라 할 수도권과 20대·30대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기사 인용된 두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국민의힘의 18~29세 지지율은 23%로 민주당(26%)보다 3%p 낮았다. 30~39세 지지율은 26%로 양당이 같았다.

서울 지역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1%로 민주당(30%)보다 1%p 높았지만, 인천·경기의 경우 국

민의힘 31%로 민주당(36%)보다 5%p 낮았다.

전체 의석의 40%(121석)를 차지하지만, 국민의힘엔 '협지'로 통하는 수도권에서 이대로 가다간 21대 총선 참패를 그대로 재현할 것인 위기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서울·경기·인천은 당 지지율이 40% 중후반 이상은 돼야 '인물론'으로 민주당과 붙어볼 만하다"며 "지도부 일정에도 신선험와 긴장감이 보이지 않는다. 이준석 체제에선 적어도 새로움이 있었다"고 우려했다.

김기현 대표가 사무총장·부총장 등 주요 당직에 친윤계 인사를 포진시키면서 '연포탕'(연대·포용·탕평) 공언이 퇴색했고, 그 결과 가장 약한 고린 수도권·청년층 지지세가 빠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다른 수도권 의원은 "김 대표 첫 인선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의원들이 많았다. 아무리 당심 100%로 치는 전대라고 해도 총선을 생각하면 중도층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4%P ↓...4개월만에 30%

갤럽...국힘·민주 33%로 동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0%, 부정 평가는 60%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3월 21~23일)보다 긍정 평가는 4%포인트(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2%p 올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11월 4주 차 조사

(30%) 이후 최저치다.

한국갤럽은 "3월 둘째 주부터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힘 "50억클럽 특검법에 민생도 국민도 없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등과 관련, "자당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다치고 죽창가, '이재명 방탄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빚수를 못써 가로막힌 민주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에는 민생도 국민도 없다"며 "또다시 본회의 통과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며 의회 폭거 협박에 나섰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김수연박법, 양극관리법, 방송법 등에서 '무늬만 무소속'인 의원들을 동원해 상임위 안전조정을 무력화했지만, 법제사법위원

회에는 필수 위장 탈당 무소속 의원도 없으니 이번 만큼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데, 그런 민주당에서 대장동 사안에 얽힌 불법행위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주도한다면 어느 국민이 특검을 신뢰하고 수사 결과를 수긍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보도자료에서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가수반 고유의 통치 권한인 정상외교에 관한 국정조사·정문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문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